

곡성군, 맞춤형 농업 교육

추진 농가소득 증대 모색

과학영농 실천·특화작목 전문 인력 양성



곡성군이 과학영농 실천과 지역 특화작목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농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기후 및 지구 구조 등 농업에 둘러싼 환경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농업의 성격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농민들에게는 관행 농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농업 기술의 습득과 농업 경영에 관한 체계적으로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트렌드에 맞춰 질 좋고 제값 받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곡성군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맞춤형 농업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먼저 매년 1~2월에는 기초 영농기술 교육 과정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유기농 벼와 채미, 딸기 등 지역 특화작목, 기타 농촌 자원 등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이나 제도,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실제 영농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3월부터는 곡성군 농업인 교육의 꽃이라고 불리는 곡성명품농업대학

과정이 개강한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작년까지 곡성명품농업대학은 49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한우와 발효식품 2개 과정에 62명의 농업인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매년 11월까지 진행되는 명품농업대학은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수요가 높은 과목을 개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어 진행된다. 장기간 진행되는 전문 교육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을 교육 대상으로 선발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실질적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운영한 멜론과 양봉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농가소득이 상승했다고 답해 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교육을 운영한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작목반,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재배 기술과 마케팅, 유통, 가공 등 농업 전반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윈윈 해결방안을 마련해준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품목별 단기 교육을 추진해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해결,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구례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



구례군은 지난 2일부터 주 2회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마을주민 60~70명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총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램은 계산 이형, 원담보진료소가 참여하여 오는 9월까지 주 2회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운동교육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일과 16일에는 전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마을주민 대상 무료 심방계동 검사 및 저염섭취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검사결과 심방계동 유소견자는 순환기내과 연계 및 추후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심방계동 검사는 거동이 불편하여 건강검진과 병원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에게 유용한 의료혜택 서비스였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본인의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군, 군수 품질 인증평가 통해 고품질 차 생산 박차

녹차수도 보성군은 최근 북재 2층 북재출에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했다.

관내 31개 차 제조 가공업체에서 출품한 38개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 업체 33개 제품이 군수품질인증을 받았다.

보성군 군수품질 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11년 차를 맞았으며, 품평 전문

가 10명이 차의 외형, 찻물 색, 향, 맛, 우려낸 잎의 형상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관능평가로 실시된다.

인증 조건은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로 심의회에서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의회를 통과하면 보성군수가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군수품질 인증제는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품질 좋은 명품녹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성녹차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여수시, 환경감시 T/F팀 본격 가동...사업장 점검

여수시가 7월 초 하반기 정기인사 때 신설한 환경감시 T/F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팀장급 1명, 주무관 2명으로 T/F팀을 꾸렸다. T/F팀은 여수시에 관리하는 3~5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 토양오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이달 12일에는 대기오염 측정지 지킴이 기록 사업장 11개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에 공동 참여했다.

다음 달부터는 여수산단 3~5중 배출업소 11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흥군, 전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

고흥군은 최근 전남도에서 시행한 '2019 귀농어귀촌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환경개선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다.

전남도에서는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마을 조성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하였다.

이에 군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과역면 도야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고흥군귀향귀촌협의회, 남양면

선정청년회, 아야미마을 9988공동사업단 프로그램 사업 3건(85백만원)이 선정되어 귀농어·귀촌인과 함께 공동체 문화를 추진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에 화합, 소통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에 대해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로 서로 상생하면서 고흥 발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오는 10월 '광양 관광의 달' 지정 운영

광양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오는 10월을 '광양 관광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

시는 '광양 관광의 달(月), 땀다. 보러 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이 공감하고 관광객이 찾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광양 관광의 달'을 운영한다.

시민 주도로 시 승격 30주년 기념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해오름유교'를 비롯한 신규 관광시설을 브랜드화하고 포지셔닝한다.

이로써 10월 한 달 내내 광양은 광양숯불구이축제, K-POP 콘서트, 미스트 공연, 남파라강길 걷기대회, SNS

홍보이벤트, 광양구미 식도락 팸투어 등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축제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오는 10월1일 광양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될 '광양해비치로' 삼화삼공원에서 '광양 관광 도약 원년'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해오름유교' 준공과 개통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로 '광양 관광의 달' 서막을 열 예정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순천시 도시재생 현장 견학



순천시는 최근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이 순천시의 지역주도 도시재생 성공사례 현장견학을 위해 향동, 중앙동 일원의 신도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순천시가 2014년부터

4년간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알려져 이루어졌다.

시에선 선도사례로 '주민생활 SOC 거점시설'로 운영중인 안력산의료문화센터, 정안창작마당, 서문안내소, 조강훈스튜디오,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방문단에게 소개했다.

추진단은 최근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청수정 마을카페'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했다. '청수정 마을카페'는 도시재생 사업

으로 향동 청수골에 위치한 1830년대 한옥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생활SOC추진단 공무원들은 단순 견학을 넘어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성공 현장을 직접보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갈등해소, 행정과 주민의 역할분담, 생활SOC 주민활용도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다.

순천시는 브리핑에서 도시재생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추진과정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권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업안정 인사관리방안 안내